

View on Confucianism and Taoism music

Kim, Seung-Won

Dept. of Social Welfar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Keyword : Confucianism, Taoism, religion, music,
heritage

CONTENTS

- I. Introduction
- II. Confucian Music Review
 - 1. Summary of Confucian Music
 - 2. Types of Confucian music
- III. Taoist Music Review
 - 1. Summary of Taoist Music
 - 2. Types of Taoist Music
- IV. Conclusion
- References

Abstract

Religious music was initially made for the divine services, and it sings about the origin of the human nature and about the true side of the universe. Therefore the music has been embracing God, the truth, and all humankind to become the immortal symbol of reconciliation.

Confucianism and Taoism have played key roles in Eastern philosophy for 2,500 years. And for a long time, they have assimilated to the traditional culture, and formed their own musical culture. Due to the prevailing Western culture in recent days, while Confucianism and Taoism became pale into insignificance, their ideology on ethics will be the eternal light and the heritage for the humankind. However their music have stayed in ethnic musical form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music of most other religions have deformed into or newly formed in global musical form, and are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of modern culture, while the Confucian and Taoist music seem to have lost many opportunities to be improved after their religious aspects were collapsed. Especially during the modernization, they were considered as irrationality, relics of past and cultural heritages. And yet the magnificence and elegance of their music can't be denied to be the most supreme that no other music can imitate.

This study briefly summarizes the origin and sentiment of these two religious music, and illuminates the precious cultural value of humanity in them, in order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history and culture permeated in their music to be passed on as an eternal heritage of humanity.

Received : 31 August, 2015.

Revised : 01-30 September, 2015.

Accepted : 16 October, 2015.

† Corresponding author : Kim, Seung-Won, 54538, 514 Iksandaero Iksan-city Jeonbuk

Dept. of Social Welfar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Tel : +82-63-840-1581 HP : +82-10-3291-3979

Fax : +82-63-840-1070 E-Mail : woncrux@wu.ac.kr

유교·도교 음악에 대한 소고

김승원(金乘圓)

|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 중 심 어 : 유교, 도교, 종교, 음악, 문화유산

목차

- I. 시작하는 말
 - II. 유교 음악 소고
 - III. 도교 음악 소고
 - IV. 맺는 말
- 참고문헌

요약

종교음악은 종교의 전례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종교음악은 예술적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 성품의 근원을 노래하고 우주 주연의 본래 면목을 노래한다. 그리하여 신과 진리를 포용하고 인간 모두를 안아 전 우주에 메아리치는 불멸의 화합의 상징이 되어왔다.

유교와 도교는 2500여 년간 동양 사상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전통문화와 동화되는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음악문화를 형성해 왔다. 비록 근대에 들어 서양문명의 팽배로 인해 빛을 잃고 말았지만, 그 윤리 사상은 인류의 영원한 등불이 되고 유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음악은 오랫동안 민족음악적 형태에 머물고 있다.

여타 종교들의 음악은 대부분 세계 음악적 형태로 변모하거나 발생하여 현대 문명의 진행속도와 그 궤를 맞추고 있으나, 근대 이후 유교와 도교의 종교적 성격이 상당부분 와해되면서 그 음악 또한 개량 발전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현대화 과정에서 이들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전락되면서 차제에 이르러 구시대의 유물로 비쳐지고 문화유산의 형태로 남아 남게 되었지만 그 음악들이 갖고 있는 장대함과 유려함은 어느 음악도 따라갈 수 없는 지고의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점에서 이들 두 종교음악의 원류와 정서를 간략히 정리하고 인류의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여, 이들 음악 안에 배어있는 역사와 문화가 인류의 영원한 유산으로 유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투고일자 : 2015. 08. 31.

심사기간 : 2015. 09. 01.-09. 30.

게재확정일 : 2015. 10. 16.

교신저자 : 김승원. 570-75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14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Tel : +82-63-840-1581

HP : +82-10-3291-3979

Fax : +82-63-840-1070

E-Mail : woncruX@wu.ac.kr

I. 서론

유교와 도교의 음악은 지난 2,500여 년 동안 동양의 중심사상이 되어 왔고 또한 한국에 전래되어 현재 까지도 우리 생활 곳곳에 접목되어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전통음악과 정신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유교와 도교의 음악은 현대적 종교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체계화된 ‘성가’의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유교나 도교의 음악들은 대부분 고유의 전통 음악과 접목된 의식 음악의 형태로 존재하기에 이들의 역사와 그 형성 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본 고(考)에서는 유교와 도교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에 바탕하여 현재의 음악 형태를 개괄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으로 연구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였다.

근래 유교와 도교를 포함한 일부 종교의 소리기공으로 사용되는 영가무도(詠歌舞蹈)¹⁾는 그 특성이 음악이라기보다는 수행 방법적 성격이 강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II. 유교 음악 소고

1. 유교 음악의 개요

동양, 특히 유교의 음악은 그 본질에서부터 서양의 그것과는 맥을 달리한다. 음(音)과 악(樂)의 개념을 나누어 음은 아름다운 곡조를, 악은 음보다 상위개념으로서 악기 연주와 춤이 포함된 개념으로 전개하였다. 즉 악(樂)은 아름다운 곡조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이루게 하며, 올바른 성정을 회복하고, 이를 넓히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1) 조선 후기, 역학의 대가이자 정역(正易)을 저술한 일부 김항(一夫 金恒)은 정역을 통해 후천역(後天易)을 가르치고 정기신(精氣神)의 조화를 통해 유불선(儒佛仙) 합일의 도를 이루도록 오음주(五吟呪)를 외며 무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영가무도라는 명칭은 이 때 생긴 것이다.

악(樂)은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훌륭한 기능을 갖고 있으나, 절제하지 않으면 방종에 흐를 염려가 있다. 이에 예(禮)와 악(樂)의 상호 보완 관계를 도모하여 예악(禮樂)을 동등개념으로 설정한 것은 대단히 탁월한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없다(조남권·김종수, 2001, 13쪽).

유교의 음악은 주로 제사의식에서 사용되며 지금은 전통음악(국악)의 한 형태로 남아 성균관의 문묘 제례악 행사를 통해 전승되고 있다.

고대 중국 유교의 음악 사상은 공자에서 비롯되어 순자의 『악론(樂論)』으로 나아가 『예기(禮記)』와 『악기(樂記)』편으로 집대성되었다.²⁾ 순자는 그의 악론에서 ‘옛 성왕은 인간 성정(性情)의 혼란을 싫어하여 아(雅)와 송(訟)³⁾의 음악을 제정하여 그것을 바르게 인도하니.....’라 하였고, 또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크게 조화 통일하는 것이요, 중화(中和)를 얻기 위한 대요(大要)요, 동시에 인정(人情)으로서 반드시 떼어 버릴 수 없는 것이다(순자, 1994, 454~455쪽).⁴⁾’라고 하여 음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였다.

고대 중국 음악의 주된 장르는 ‘사(詞)’였다. 이 사(詞)의 성립에 대해 양해명은 『당송사사(唐宋詞史)』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시와 음악은 본래 근원이 동일한 예술 양식이다.’라 하고, 시와 음악은 선주(先奏)에서 당송(唐宋)에 이르기까지 세 번의 합분(合分)과정을 통해 중국 고대문학

2) 권오순은 『예기』 첫머리에서 ‘사람으로서 음악의 뜻을 알려고 하면 불가불 순자의 악론편과 예기의 악기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순자의 악론은 이 편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편은 그야말로 악경(樂經)의 유류(遺流)로서 가장 완전하고 따라서 가장 존중해야 할 것이다.’라 하여 악기(樂記)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3) 아(雅)는 바르다(正)의 뜻으로 정악(正樂)을 의미하며, 송(訟)은 역대 조사의 위대한 덕을 찬미하는 뜻으로 천자가 종묘에 제사지낼 때 사용하던 음악을 말한다.

4) 「先王惡其亂也 故制雅訟之聲 以道之」, 「樂者 天下之大齊也 中和之紀也 人情之所必不免也」

의 보고(寶庫)인 사(詞)를 탄생시켰다(양해명, 1995. 62~74쪽).

이러한 시(詩)와 악(樂)의 관계에 대해 『禮記·樂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개하였다.

「詩言其志也 歌詠其聲也 舞動其容也 三者 本於心 然後樂器從之」 시는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소리를 읊조린 것이고, 춤은 자태를 움직인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후에 악기가 이를 뒤 따르는 것이다(권오순, 1993, 379쪽).

이에 대해 공자는 시(詩)와 악(樂)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興於詩 立於禮 成於樂」 시로써 순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예로써 자신의 주체를 확립시키며, 악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한다(논어, 154쪽).

즉, 음악의 율(律)에 맞추어 시를 노래함으로써 사(詞)를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 중국 문학의 보고인 사(詞)가 탄생된 배경에는 음악이 있다. 고대 중국의 음악은 이보다 훨씬 더 먼저 이룩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예악사상(禮樂思想)이란 예와 악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으로, 이는 유교의 대표적인 정치이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예악으로써 안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순하고 바르게 이끌며, 밖으로는 이러한 백성들로 가득 찬 기(道)와 덕(德)이 있는 이상국가(理想國歌)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유교가 인류의 도덕 질서 및 정치 질서의 틀로서의 '예(禮)'를 최고의 이상적 가치체계로 결정하여 모든 사람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악(樂)'으로 교화함으로써 인류의 이상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한홍섭, 1977, 13~21쪽). 유교의 음악은 이러한 공자의 예악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고대 중국 문학의 바탕이

되어 발달하였다.

한국에 유교가 들어온 이후⁵⁾ 발달된 유교의 음악은 유교의 의식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곧 제례의식이다. 조선시대 국가적인 규모로 지내던 제사 가운데 종묘제례나 문묘제례에는 반드시 제례악이 수반되었다. 이 장에서는 유교 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곡의 성립과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유교의 음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유교 음악의 종류

유교에서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의례로는 문묘에서 행하는 춘추석전(春秋釋奠), 식망분향(朔望焚香), 그리고 종묘에서 거행하는 종묘대제(宗廟大祭) 등이 있다. 이들 의례에는 각 식순마다 음악이 연주되었지만, 유교의 의례는 정기적 범요행사라기 보다는 제사적 성격이 강하다. 이들 의례에서 사용되던 음악 중 조선의 역대 제왕의 제사 때 쓰이는 제사음악인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과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묘에서 제사음악으로 사용되는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1)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

종묘와 영녕전(永寧殿)의 제사에 쓰이는 제사음악 일체를 말하며, 종묘악이라고도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이다. 제향에 음악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은 <고려사>에 처음 보이는데 1116년(예종 11)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온 대성아악(大晟雅樂)을 같은 해 10월 태묘(太廟), 즉 종묘에 사용했다 한다. 그러나 고려의 아악은 완전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었고 향악·당악과 함께 사용되었다(장사훈·한만영, 1975).

조선 초 1405년 4월 문묘·종묘 등 배신(陪臣)의 제복과 악기가 너무 낡아 1406년 7월 내사(內史) 박린·

5) 시기적으로는 3세기경으로 추정하고 고구려에 태학(太學)이 설립된 372년(소수림왕 2)을 하한선으로 잡는다. 그런데 이 372년은 전주(前秦)의 왕 부견(苻堅)이 순도(順道)를 시켜 불상과 불경을 고구려에 전한 시기와 일치한다.

김희 등을 중국에 보내 악기를 들여왔다. 조선 초기에는 여러 곡을 지었으나 조종(祖宗)의 공덕을 기리기에는 부족하다 하여 세종은 고취악과 향악에 바탕을 두어 정대업(定大業), 보태평(保太平), 발상(發祥)⁶⁾, 봉래의(鳳來儀)⁷⁾ 등을 창제했다. 그중 정대업과 보태평은 회례악무(會禮樂舞, 잔치음악)로 창제된 것이고 종묘제례악에는 쓰이지 않았다. 보태평은 조상들의 문덕(文德)을, 정대업은 무공(武功)을 칭송한 한문시의 가사를 말하는데, 이것을 악장(樂章)이라고 한다. 보태평의 각 곡은 임중궁평조(林鍾宮平調)인 5음음계이고, 정대업은 남려궁계면조(南呂宮界面調)인 5음음계로 이루어졌다.

이 곡들은 최초의 유량악보(有量樂譜)인 정간보(井間譜)와 율자보(律字譜)에 의해 기보되었다. 세종 때의 보태평은 11곡으로 평조였고, 정대업은 15곡으로 계면조였다. 이들 곡이 종묘악으로 쓰인 것은 세조 때부터였다.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형태로 정리되었으며, 지금은 전주이씨 종친회의 주관으로 해마다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에서 거행되고 있다.

2) 문묘제례악(文廟祭禮樂)

문묘(文廟)는 공자(孔子)와 그의 제자 및 우리나라

의 유학자들을 모신 사당을 가리키며, 제례악은 문묘제례 때 사용되는 음악을 말한다. 문묘제례를 석존(釋奠)이라고도 하며, 문묘제례에 사용되는 음악을 문묘악, 문묘제향악, 석존악(釋奠樂) 등으로 부르는데, 그 본래의 악곡명은 응안지곡(凝安之樂)이다.

문묘악은 고려 때인 1116년(예종 11) 6월 하례사인 왕자지(王字之)·문공미(文公美)가 돌아오는 길에 송나라의 휘종(徽宗)이 주는 대성아악(大晟雅樂)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뒤 이 대성아악은 원구·사직·태묘(太廟)의 제향과 더불어 문선왕제(文宣王祭) 곧 문묘 석전에 사용하였다. 이를 세종 때 박연이 다시 만들었으며 그 악보가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전한다. 이후 몇 차례의 변화를 거쳐 영조 이후에 현재의 모습으로 전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8, 370쪽).

우리나라에서 연주되는 문묘제례악은 본래 중국 상고시대에 기원을 둔 것으로 고려 때 중국 송나라에서 전래되었고, 지금도 성균관 대성전(大成殿)에서 봄, 가을의 석존제(釋奠祭)때 연주되고 있다. 이 음악은 중국 고대 아악(雅樂)의 전통을 잇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은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오직 우리나라에만 전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음악 형태이다.

III. 도교 음악 소고

1. 도교 음악의 개요

도교는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전래된 후⁸⁾ 고려시대에 민간사상과 결합하면서 가장 발전하였으나 조선 중종 때 소격서가 혁파되면서 서서히 사라져가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며, 도교의 음악 역시 한국에서는 전통음악(국악)의 형태로 극소수만 남아 있을 뿐이다.

도교의 음악 역시 여타의 동양권 음악과 마찬가지로

6)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李成桂)와 그의 조상이 하늘의 명을 따른 상서(祥瑞: 복되고 좋은 일이 일어날거라는 조짐)를 받았다는 내용을 노래와 춤으로 나타낸 무곡(舞曲)이다. 이 악곡은 익조(翼祖)·도조(度祖)·태조(太祖)의 덕을 찬양하는 11악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명칭은 희광(熙光)·순우(純佑)·창부(昌符)·영경(靈慶)·신계(神啓)·현휴(顯休)·정희(禎禧)·강보(降寶)·응명(凝命)·가서(嘉瑞)·화성(和成)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 180쪽).

7) 1445년(세종 27) 4월 세종의 명으로 권제(權躋)·정인지(鄭麟趾)·안지(安止)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의 가사에 맞추어 작곡된 음악을 지칭하는 말로서,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던 정재 및 무용음악의 총칭으로도 사용되었다. 전인자(前引子)·여민락(與民樂)·치화평(致和平)·취풍형(醉豐亨)·후인자(後引子) 등 다섯 개의 곡으로 구성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 78쪽).

8) 한국에 도교가 유입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고구려 영류왕 7년(624)에 당(唐) 고조가 고구려에 도사(道士)를 파견하여 천존상(天尊像)을 보내고 도덕경을 강론한 때로 본다.

로 재 의식을 위주로 하여 형식면에서의 발전적 흐름을 크게 보여주지는 못하나 음악 사상은 자연주의철학의 본질에 바탕한 깊은 이론을 가지고 있다.

도교 사상은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기(B.C 221-770) 노자(老子, B.C 570-460)에 의해 성립되고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장자(莊子, B.C 339-286)에 의해 확장되었다.

특히 도교사상 가운데서 음악 사상은 AD.3세기 경 중국이 위(魏)에서 진(秦)으로 교체될 무렵 은둔생활을 지향하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사람인 혜강(惠康, 223-262)⁹⁾에 의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음악 사상으로 정리되었다(김철화, 2004, 54쪽).

도교의 음악이란 도교의 의례, 종교활동 등에 사용되는 음악의 통칭이다. 재초음악(齋醮音樂)¹⁰⁾ 및 도사가 선도(宣道)·포도(布道)와 수신양생(修身養性)할 때 사용되는 음악을 포함한다. 재초음악은 ‘도장음악’, ‘법사음악’이라고 하는데 집중적이고도 전형적으로 도교음악의 정신특질과 외향 형태를 나타내기에 도교음악을 습관적으로 재초음악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한다.

도교음악은 재초과의(齋醮科儀)¹¹⁾에 배합하여 사

용하는 의식음악으로 종교의 분위기를 돋우고 감수자로 하여금 심미체험의 예술기능을 나타내게 하며 신도의 신앙을 강화하고 심신을 수련하게 하는 작용을 말한다(한연화, 2007, 25쪽).

김철화는 그의 논문(2004, 54-58쪽)에서 도교음악의 선율과 리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율을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정지해 있는 듯하나 그 속에서는 부단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하나의 음향의 흐름이 보인다. 그것을 더 멀리에서 보면 마치 정지해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음향의 공간성과 구체성, 상상적인 접근과 멀어짐, 빛과 음영이 어우러지는 관계, 일종의 정지 속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도교의 정심세계에 영향을 받아온 동아시아 문화권의 음악에서는 개별음 그 자체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부단한 유전의 과정을 일으키며 충분한 음악적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 개개의 음은 많은 변화능력을 갖고 있다.

한편 리듬은 움직임과 정지와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으며 음량 구조 역시 썸과 여림을 교대로 반복하고 있다. 마치 음과 양이 서로 필요로 하듯이 상대성과 균형성이 음악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음악 속에 내재된 다층적 구조는 도교의 이념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통일체를 만들어내며 이 통일체 안에는 동-정(靜-動), 강-유(強-柔) 등의 변증법적 순환과정이 용해되어 있는 것이다.

도교는 유교와 함께 우리나라 민족의 정신사뿐만 아니라 예술의 미학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 도교는 미와 예술을 사회의 윤리, 도덕과 연관시키지 않고 미와 예술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유교와의 큰 차이인데, 노자는 ‘도’의 무위자연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개체 생명이 어떻게 자유로운 발전으로 구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미와 예술의 문제를 고찰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면에서 유가(儒家)를 훨씬 능가하는 미학 사상을 창출해냈다고 본다.

도교의 음악은 노자의 철학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정중동(靜中動)과 음양사상(陰陽思想)의 원리를 발

9) 혜강(嵇康, 223~262)은 중국 삼국 시대 위나라의 음악가이자 작가, 시인으로 자는 숙야(叔夜)이다. 죽림칠현 중 한 사람으로 《양생론》, 《산거원》 등 수많은 철학·정치적 논문과 서간문을 썼다. 당시 위나라 공주(폐목왕의 손녀)와 결혼했는데 정치적 반대 세력이던 종회에게 모함을 받아 40세의 나이에 처형을 당했다. 저서로는 《고사전》과 《성무애락론(聲無哀樂論)》이 있으며 성무애락론은 음악에서 감정보다 이(理)가 중요하다는 이치를 대화 형식으로 풀어쓴 것으로 유교 사상에 나오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에 음악을 가려서 들어야 된다’라는 이론을 반박한 것으로 후세에 평가된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10) 재초음악(齋醮音樂)에서 재초는 도교의식에 대한 전문적인 명칭이다. ‘과의’, ‘도장’이라고도 한다. 재(齋)는 순결, 재계의 뜻이 있고 초(醮)는 관(冠), 취(娶)의 예와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 있다.

11)과의(科儀)는 의식을 통칭하는 말이다. 과(科)는 동작, 절차를 뜻하고 의(儀)는 예절, 의식, 행위규범을 뜻한다.

전시켜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는 주돈이의 태극도설의 원리에서 비롯한다.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無極이면서 태극이니, 태극이 動하여 陽을 생하고 동함이 極에 이르면 靜하게 되며, 정하면 陰을 생하고 정함이 極에 이르면 다시 동하게 된다(성백효, 2006, 39쪽).

도교 철학에서 모든 존재의 출발점은 도(道)이다. 나눌 수 없는 통일체인 이 도로부터 음과 양이라는 두 근본 원리가 전개되어 나오며 이들의 다양한 결합에서 만물이 생성한다고 한다. 즉 ‘동(動)의 극치가 양(陽)을 만들어 내고, 이 동(動)이 그 한계에 달하면 정지 상태(靜)가 되고 이 정(靜)에서 동(動)이 음(陰)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또 정(靜)이 그 한계에 다다르면 거기서 동(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도교에서 인간은 항상 우주 대자연의 영원하고 순수하며 생성과 변화를 거듭하며 흘러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순응하고 일체화되어야 한다는 자연 중심적 세계관을 말한다. 노자의 음악사상을 계승한 장자는 더욱 적극적인 음악사상을 펼치는데 도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며 생성과 변화의 총체로서 간주하고 특히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였으며 음악미의 본질을 마음속에 순수하고 진실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두어 인위적이거나 화려하게 수식된 것보다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에서 나온 평온하고 화평한 것을 음악미의 표준으로 삼는 심미적 음악관을 가졌다(김철화, 2004, 58쪽). 그러므로 도교에서는 우주의 본체를 ‘악(樂)’의 본체이자 본질로 이해하고 있다.

2. 도교 음악의 종류

1) 도교음악의 분류와 형식

(1) 도파(道破)

근세기 도교음악은 원대 이후에 분리된 ‘정일파’와 ‘전진파’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정일파는 세속에 순

응하는 종교로서 이 파의 도사들은 대부분이 민간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생활 쪽으로 향하고 있다. 도사들은 민간과 교류를 통해 민간음악 형식을 광범위하게 흡수하여 자신들의 음악을 풍부히 했기에 음악에 세속적 분위기가 농후하다. 정일파는 악기배치가 통일되지 않았으며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에 비해 전진파는 세속을 벗어난 종교로 이 파의 도사들은 모두 궁관에 거주하고 있고 종교생활 위주로 향하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전진파는 자신들만의 풍격만을 고수하여 그 음악은 농후한 종교분위기로 이루어져 있다. 악기배치는 타악기·취관악기 위주로 형성되고 통일되어 있다.

(2) 유별(類別)

도교음악은 성악과 기악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성악형식은 운강(韻腔), 운자(韻子)라고 하며 송경위주로 된 도교음악의 주체이다. 기악형식은 곡패(曲牌), 곡자(曲子)라고 하며 악기와 법기를 연주하는 음악이고 도교법사의 단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의식에 사용한다. 이러한 운강, 운자, 곡패, 곡자 등은 과의 내용과 용도에 따라 더 세밀하게 세분되기도 한다. 연주형식은 악기와 법기의 사용 구분과 형태에 따라 대주(大奏), 세주(細奏), 절주(節奏), 청주(淸奏), 격주(擊奏)로 구분한다. 이외에도 독주 등의 몇 가지 형태를 더 가지고 있다.

(3) 악보형식

도교음악을 기록하는 악보에도 곡선 기호로 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하는 성곡선(聲曲線), 한자 ‘당청(當請)’을 도교의 타악기 중의 상성자(狀聲字)로 음악절주를 기록하는 당청보(當請譜), 가장 보편적이고 창계명을 사용한 공척보(工尺譜), 한자의 음을 비슷하게 맞춘 낭보(朗譜), 이외에도 타악기 악보인 곤찰보(坤鏢譜), 모산도원의 가애보(呵叟譜), 노산청운의 권점보(圈點譜) 등이 있다.

2) 주요 작품

도교 음악 작품으로는 도교 역사상 최초의 곡자(曲子)인 보허성(步虛聲)과 고려 때 들어온 중국 송대(宋代)의 음악인 보허자(步虛子), 낙양춘(洛陽春) 등이 대표적인 도교음악이다.

보허성은 보허운(步虛韻)이라고도 한다. 그 선율이 많은 신선이 허공을 걸어나가는 것 같다고 하여 보허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도교의 도사를 보허인(步虛人) 또는 보허자(步虛子)라 하고, 도사가 경 읽는 소리를 보허성(步虛聲)이라 한다. 여러 신선들의 신비스러운 생활과 경묘한 자태를 찬미하는 노래이다.

보허자(步虛子)는 고려 때 들어 온 중국 송나라 사악(詞樂)의 하나로 오양선(五羊仙)이라는 당악정계에서 부르던 창사(唱詞)로 부르던 노래였다. 장춘불로지곡(長春不老之曲)이라고도 한다.¹²⁾ 보허자는 관악보허자인 장춘불로지곡과 현악보허자인 보허사(步虛詞 - 다른 이름은 황하청(黃河淸), 영조 때부터 발달) 등으로 과생되었다(한국음악21, 국립국악원, 2쪽).

그 외에 고려 말부터 전래하는 당악계 송 사악의 하나로 궁중연례에 자주 연주되던, 기수영창(其壽永昌=현악) 또는 하운봉(夏雲峯=현악) 등으로 불리지는 낙양춘(洛陽春) 등이 있다(한국음악16, 국립국악원, 3쪽).

IV. 결론

문화는 그 주체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보편적 정서에 담겨있는 정신적 유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화는 고유성과 보편성을 함께 지니고 발전한다.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물질적, 정신적 가

12) 보허자는 장춘불로지곡(長春不老之曲)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나, 이러한 이름은 조선 말기 진연(進宴: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궁중에서 베풀던 잔치)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지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많은 다른 이름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 886쪽).

치 창조를 문화라고 한다면 음악은 인간에게 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창조해 주는 도우미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소중한 보물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한 방법으로 개인의 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교육된 이래 인간의 생활과 정신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음악에는 조형예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으며, 또한 그 안에 인간의 내면에 깊이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는 그 자체보다는 종교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종교가 목적하는 이상세계 건설을 넓은 의미의 교화라고 한다면, 작게는 자신과 타인의 종교적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는 음악이라는 재료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고자 한다. 즉 종교적 행위에서 음악은 빼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종교음악의 형성·발전 과정에는 그 종교의 역사와 숨결이 배어 있다. 종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음악의 연구도 그러한 역사와 숨결이 담겨져 있으며 경전에는 담겨질 수 없는 일반 민중들의 영혼과 열정이 담겨 있다.

유교와 도교는 2,500여 년간 동양 사상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근대 이후 서양문명의 팽배로 인해 빛을 잃고 말았지만, 그 윤리 사상은 인류의 영원한 등불이 되고 유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음악은 민족 음악적 형태에 머물고 있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 등의 음악은 세계 음악적 형태로 변모하거나 발생하여 현대 문명의 진행속도와 그 궤를 맞추고 있으나, 이들의 음악은 스스로 개량 발전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서로 다른 양상으로 현대사회에서 구시대의 유물로 비쳐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유교와 도교의 음악은 이제 문화유산의 형태로 남게 되었지만 그 음악들이 갖고 있는 장대함과 유려함은 어느 음악도 따라갈 수 없는 지고의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의 과제는 유교와 도교음악의 원류에 대한 연구이다. 민족음악을 연구한 권오성(전 한양대) 교

수는, 국립국악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모르는 낙양춘, 보허자를 중국음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¹³⁾

유교의 역사가 약 2,500년이니 그 음악의 역사도 그것을 넘지는 못한다. 그러나 고조선 등 우리 상고사는 알려진 부분만 해도 약 4,300년 정도이고 그 시기에 이미 영고 제천 등의 제사 의식이 진행되었음이 기록으로 전한다. 유교와 도교의 음악이 일부 고려

또는 조선 시대에 유입되었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 우리 역사에서 중국문화로 역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 한국의 유교와 도교에서 행해지는 두 종교의 음악에 대한 원류는 중국이 아닌 고대 한국일 가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단행본

- 「韓國音樂史」, (『韓國藝術史叢書』 III, 大韓民國藝術院), 1985.
 『순자』, 「樂論」, 정장철 역해, 혜원출판사, 1994,
 『樂記(동양의 음악사상)』, 조남권·김종수 역, 민속원, 2001.
 『禮記』, 권오순 역해, 홍신문화사, 1993.
 『한국 종교의 의식과 예절』, 문화체육부 중무실, 1996.
 그레이슨, 제임스 헨틀리, 강돈구 역, 『한국 종교사』, 민족사, 1995.
 막스 베버, 이진용 역, 『음악사회학』, 민음사, 1993.
 성백효, 「근사록집해」 1, 전통문화연구회, 2006.
 원성희, 『성가문헌』,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1.
 양해명, 『唐宋詞史』, 신아사, 1995.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중앙대학교 출판국, 1976.
 이장직, 『음악과 사회』, 청하, 1991.
 임상후, 『종교 음악개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한홍섭, 『중국 도가의 음악사상』, 서광사, 199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음악』 1~26, 국립국악원, 은하출판사, 1991.

● 논문류

- 한연화, 「한국·중국 도교 음악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논문, 2007.
 김철화, 「도교와 한국음악」(『시민시대』 통권 232호, 목요학술회), 2004.

13) 「한국음악학에 대한 연구 관점과 성과」, 권오성(權五聖) 인터뷰자료, 국립국악원, 2010.

● 기타 자료

「한국음악학에 대한 연구 관점과 성과」, 권오성(權五聖) 인터뷰자료, 국립국악원, 2010.